


# 문학과 치유

담당교수 : 문선영



## - 현재 나는....

- 
- 나의 신체 점수?
  - 나의 마음 점수?
  - 나를 지배하는 감정들은?

## 아주 환한 날들 - '그녀'

· 해야 할 일과 일상을 정교하게 계획, 성실함, 완고함,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함,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 함.

▪ **삶의 변화를 준 두 가지 사건 : 앵무새 키우기, 수필 쓰기 수업**

➤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계기 : 어린 시절 이야기, 딸과의 추억

① 딸 인서가 병아리 사와서 닭이 될 때까지 키우고 그 닭을 없애자 자신을 원망하던 기억

② 강진에서 유년 기억

③ 중학교 때 친구 점선이와 대학생 오빠들과의 추억

④ 딸이 운동회에 와달라고 부탁하지만 이를 거절한 기억

⑤ 홍수가 나서 사촌 언니에게 업혀 동요를 듣던 기억



## 상처와 성장

-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세요"

## 마음 들여다보기와 글쓰기

- 프로이트 : 의식과 무의식

- 무의식 -> 의식 (의식화) : 자기방어, 승화

- 앵무새 키우는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떠올린 기억들

- 앵무새와의 산책 : 킁킁되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순간 , 유년 기억이 떠오름
- 유쾌하지 않은 상처가 된 기억, 좋았던 기억
- “ 어떻게 이런 것들을 까맣게 잊었을까?”
- 딸에 대한 기억: 미안함과 자책 (앵무새에 대한 애정과 관심)

## 상실의 기억

“앵무새가 갔다. 그녀는 일상을 되찾았다. 월요일엔 동네 슈퍼에서 채소를 샀고, 수요일엔 평생교육원에 갔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한 후에 결명자차를 끓이며 텔레비전을 보았고 다 본 후에는 가스 불을 끄고 잤다. 모든 게 변함 없었지만 그녀는 천변에 한동안 나가지 못했다. 천변의 모든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백수린, 234)

### · 앵무새의 빈자리에 대한 상실감

-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 : “너무 무서운 일”
- 마음 : 모든 경험, 아픈 기억과 상처 포함
- 상실과 이별, 실수한 경험, 실패와 과오 등

## 앵무새의 부재

"그녀는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노트를 펼쳐보았다. 갈피에 끼여 있던 아주 작은 연노란빛 솜털 하나가 그녀의 무릎 위로 떨어져내렸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앵무새, 라고 써봤다. 앵무새가 갔다. 라고 쓰려다가 버렸다.고 썼다.는 문장을 보자 너무 고통스러워 그녀는 눈을 감아야 했다. “(235~236)

## 상실과 이별의 수용

- “앵무새가 가버렸다”

- 홀로 남은 자신, 되돌릴 수 없는 상황, 이별의 고통, 망막함과 절망

- “어두운 강물 속처럼 그녀는 길을 찾기 위해 물풀을 헤치는 사람처럼 눈을 감은 채 기억들 사이를 헤쳐 지나갔다.”

- 상실과 이별 : 수용과 인정 -> 삶의 온기(환한 날들)



## 종료되지 않은 일들, 남겨진 감정

-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후
  - 사건에 대하여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저 흐느끼거나 또는 분절된 언어를 쏟아낸다.
-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시작되는 이야기하기
  - 물론 그 이야기가 믿을 만한 사실이라는 뜻은 아니다.
  - 하지만 어쨌든 처음-중간-끝을 포함하는 이야기를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 이야기 - 글쓰기 - 문학

- 우리는 우리가 겪은 일을 이해하게 된다. 자기 존재를 이해하게 되고, 자기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 경험되어진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끼치게 될지, 미래가 어떠해야 하는지 가늠하게 된다.

“모든 슬픔은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거나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견뎌질 수 있다.”

이자크 디네센

### 타인에게 이야기 하기

- ✓ 내게 벌어진 일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슬픔이 차츰 잦아들고 거기서 벗어나다고 느끼기 때문

### 나의 아픔의 첫 번째 청자는 '나'

- ✓ 내 마음의 무늬를 읽는 법을 배워야 내 슬픔을 읽을 수 있고, 그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
- ✓ 나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기대어보기

영혼의 가장 맛있는 부분

- 다니카와 순타로

하느님이 땅과 물과 햇빛을 주고  
땅과 물과 햇빛이 사과나무를 주고  
사과나무가 빨갭게 익은 열매를 주고  
그 사과를 당신이 나에게 주었다.  
부드러운 두 손으로 감싸서  
마치 세계의 기원 같은  
아침 햇살과 함께  
한마디 말도 없었지만  
당신은 나에게 오늘을 주고  
잃어지지 않을 시간을 주고  
사과를 가꾼 사람들의 웃음과 노래를 주었다.  
어쩌면 슬픔까지도  
우리 위에 펼쳐진 푸른 하늘에 숨은  
그 정처 없는 것을 거슬러서  
당신은 그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영혼의 가장 맛있는 부분을  
나에게 주었다.